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 창안배경과 실체 연구

성기숙

성균관대 강사

Abstract

Study on the Creation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Consonants and Vowels Combined Notation of Dance in North Korea

Gisuk Seong

Lecturer of Dance

Sung Kyun Kwan University

Although the consonants and vowels combined notation of dance in North Korea was created in 1987, its history is effective from early 1970s. The Dance Notation Research Organization was formed by Kim Jong Il's order then, and the notation was made in 1987 under the Party's continuous interests and supports. This notation is, first, based on scientificity and commonness. North Korea is proud that it can be learned and notated easily.

The consonants and vowels combined notation of dance, as seen in the 'consonants and vowels combined' of the name, is combined with consonants and vowels in linguistics, which was devised in North Korea. It is composed of notation marks, combination of marks, dance score and dance full score. North Korea regards the notation as a representative product that reflects the Juche art ideology based on its unique socialism. In addition, North Korea is carrying on propaganda that it is a world's sole dance notation system with scientificity, commonness and originality. It is thought that more interests shall be taken in the consonants and vowels combined notation of North Korea, in the aspect that dance notation is expanded into the fields of dance history, dance literature and choreography beyond its effect as a mark just notating dance movement.

■참고문헌

- 김경희 편저(1998). 『라반노테이션』, 서울: 풀빛.
- 김정일(1992). 『무용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강광국(1987). 「무용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할 수 있게 한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5.
- 김룡철(1987). 「새로운 무용창작과 창조체계를 확립한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5.
- 김정웅(198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자주시대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 김일성 동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제홍·유영근(1999). 『무용예술의 기초』, 평양: 한국문화사.
- 강성원(2000). 「북한 주체예술의 당성과 미감의 관계」, 『북한예술의 동향과 전망』, 한국동양예술학회 제3회 학술심포지움 발제논문집, 한국동양예술학회.
- 김채현(1995). 「북한무용 50년의 회고와 전망」, 『북한문화 연구』 제3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남용진(1987). 「가장 과학적이며 통속적인 우리 식의 독창적인 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5.
- 리만순(1992). 「주체적인 무용예술의 창조와 건설을 위한 강령적 지침」, 평양: 『조선예술』, 1992. 10.
- 리봉실(1995). 「무용보표 쓰기」, 평양: 『조선예술』, 1995. 9.
- 리희섭(1987).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확립의 기본요구」, 평양: 『조선예술』, 1987. 7.
- 박경실(1992). 「무용예술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전서」, 평양: 『조선예술』, 1992.
- 박순희(1987).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은 배우기도 쉽고 표기하기도 쉬운 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5.
- 박영란(2001). 「과학적이고 통속적인 자모식무용표기법」, 『20세기 조선민족무용 및 최승희무용예술』, 국제고려학회 연변대 예술연구소 공동주최 국제무용학술심포지움 발제논문집.
- 주문길(1996). 「주체적인 무용예술 건설과 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 평양: 『조선예술』, 1996. 1.
- 정병호·이병옥·최동선(1991). 『북한의 공연예술 II』,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성기숙(2002).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원론적 접근」, 『댄스포럼』, 2002. 5.

- 손창준(1999). 「주체적인 무용예술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신 불멸의 령도」, 평양: 『조선예술』, 1999. 9.
- 앤 허치슨 게이트, 김말복·조은숙 역(2001). 『무용보의 역사와 실제』, 서울: 예전사.
- 이병옥(2001). 「1990년대 이후 우리 식 북한무용의 현황과 전망」,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전망』, 제3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학술심포지움 발제논문집.
- 한국무용기록학회(2001).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창간호, 한국무용기록학회.
- 함원식(1987). 「로동당시대에 창제된 자랑찬 문화재보 - 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3.
- 평양음악무용대학 음악무용연구소 무용표기연구실.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1)」, 평양: 『조선예술』, 1987. 5.
- 평양음악무용대학 음악무용연구소 무용표기연구실.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2)」, 평양: 『조선예술』, 1987. 6.
- 평양음악무용대학 음악무용연구소 무용표기연구실.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3)」, 평양: 『조선예술』, 1987. 7.
-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4대명작 무용총보- 조국의 진달래』. 평양: 문예출판사, 1988.
- 『자주시대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 김일성 동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8.
- 「가장 과학적이며 통속적인 우리 식의 독창적인 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5.
- 「대단히 훌륭한 무용표기법- 우리나라 무용표기법에 대한 반영」. 평양: 『조선예술』, 1987. 5.
- 「새로 창제된 무용문자」. 평양: 『조선예술』, 1987. 4.
- 「우리식 무용표기법의 창제는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 평양: 『조선예술』, 1988. 2.
- 「세계의 어떤 복잡한 민족무용도 다 표기할 수 있다」. 평양: 『조선예술』, 1989. 2.
- 「무용예술분야에서 위대한 발견이다」. 평양: 『조선예술』, 1989. 4.
- 「우리나라 자모식무용표기법실현모임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진행」. 평양: 『조선예술』, 1990. 1.
- 「인류가 크게 경탄할 크나큰 사변」. 평양: 『조선예술』, 1990. 3.
- 「조선에서 새로 창제된 자모식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90. 4.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 『무용예술론』을 출판」. 평양: 『조선예술』, 1992. 10.